

책 속으로 한 발 더 독후 활동지



칠성 에이스

고수진 장편소설

#경쟁 #라이벌 #일제강점기 #가족 #우정

◆책 소개

주인공 창이는 처음으로 야구 대항전에 나가게 됐다. 창이가 속한 칠성 아이들은 바닷가 초입의 솔밭 공터 훈련장에서 새끼줄로 만든 야구공으로 연습을 했다. 하지만 설렘도 잠시 훈련장으로 일본인 야구부 광일이 왔다. 두 팀은 서로 훈련장을 사용하겠다고 다투었다. 그때 광일 유니폼을 입은 요시다가 다가와 일본인 학생을 막았다. 창이는 요시다가 궁금해졌다. 그때 친구 난영이가 다급하게 뛰어왔다. 창이의 유일한 가족인 할머니가 아프셔서 위험하다는 것이다.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창이는 힘겨웠다. 하지만 야구 훈련을 멈출 수는 없었다. 창이는 더 열심히 훈련했다. 그러다 사진으로나마 볼 수 있었던 엄마와 닮은 사람을 보게 됐다. 그 사람은 요시다의 엄마로 히토미 부인이었다. 창이는 혼란스러웠다. 드디어 대항전 날이 됐다. 하지만 공은 제멋대로 날았다. 과연 창이의 야구 대항전은 어떻게 될까. 그리고 요시다의 엄마라는 히토미 부인의 정체는?

◆독서 목표

- ① 작품을 이해하고 서로의 생각을 공유할 수 있다.
- ② 소설 속 인물의 감정과 상황에 공감할 수 있다.
- ③ 독후 활동을 통해 배경지식을 확장할 수 있다.

차례

1. 알아 가기
2. 이야기 꾸리기
3. 알쏭달쏭 야구 한바탕
4. 칠성 에이스 봉창이
5. 요시다의 속마음
6. 그날의 일제 강점기
7. 설마! 히토미 부인?
8. 나랑 닮았네!
9. 굴러 굴러 야구공
10. 야구는 나의 꿈이라고요!
11. 생각 공유하기
12. 내일의 창이



1. 알아 가기

Q1 책 표지에 네 명의 인물이 있습니다. 각각 어떤 캐릭터일지 상상해 보아요.



Q2 소설 제목에 나오는 '칠성' 혹은 '에이스' 중 단어를 선택해 주세요. 그리고 단어를 이어 끝말잇기 해 보세요.

예) 칠성 → 성공 → 공기 → 기린

2. 이야기 꾸리기

Q1 보기의 소재목을 보고, 이야기를 추측해 볼까요.

보기	정면 승부	자존심	새 얼굴
	첫 만남	변화구	경고

Q2 마음에 드는 소재목을 하나 골라 자신만의 이야기를 만들어요.

예) <자존심> 밥 먹기 직전! 부모님과 다투다. 자존심 그게 뭐라고. 하루 종일 쭈뼛 굴었다.

3. 알쏭달쏭 야구 한바탕

Q1 야구 용어 이름과 설명이 알맞게 이어 주세요.

안타 ●

● 투수가 던진 공이 스트라이크 존을 지나가는 일.

커브 ●

● 투수가 타자에게 스트라이크 존을 벗어난 볼을 네 번 던지는 경우.

만루 ●

● 투수의 공이 타자 가까이에서 변화하며 갑자기 꺾이는 변화구.

스트라이크 ●

● 수비수의 실책 없이 타자가 베이스를 갈 수 있게 공을 치는 기술.

볼넷 ●

● 1루, 2루, 3루 전체에 주자가 있는 상황.

Q2 소설 속에 나온 야구 용어 중 궁금한 이름이 있었나요? 그렇다면 용어와 그 뜻을 찾아 적어 보세요.

예) 외야수: 야구에서 외야를 지키는 걸 말한다. 우익수 · 좌익수 · 중견수가 있다.

4. 칠성 에이스 봉창이

창이는 야구가 좋았다. 야구공을 던질수록 그 마음은 점점 더 커졌다. 그래서 오히려 마음이 무거웠다. 식민지 백성으로서 야구를 좋아한다는 건, 사치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창이는 야구여야만 했다. 야구는 조선인이든 일본인이든 상관없이 누구나 공평하게 타석에 설 수 있었고, 주어진 기회만큼 공을 던질 수 있는 경기였다. 경기장 안에서는 모두가 동등했다. 그런 순간이 창이에게는 소중했다. _p.148

Q1 창이는 야구를 왜 좋아하나요.

Q2 야구를 할 때 창이의 특기는? Hint p.68

Q3 여러분도 자신만의 특기를 생각해 보세요!

예) 웹툰 그리기.

5. 요시다의 속마음

“이 한심한 녀석! 기어이 내 말을 거역하겠다는 거냐?”

창이가 자리를 잡자마자 한 남자가 고함을 내질렀다. 창이는 가슴이 쿵쥔거렸다.

“당장 야구 때려치우고 일본으로 돌아가! 넌 일본 제국의 군인이 되어야 해! 우리 가문의 명예를 높여야 한다고!”

그의 거친 소리가 온 정원에 울렸다. 그 와중에 창이는 야구라는 단어가 귀에 꽂혔다.

“싫어요! 군인은 아버지의 꿈이지 제 꿈이 아니에요. 제 꿈은 야구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응? 이 목소리는?’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창이는 궁금증을 못 참고 고개를 내밀었다. 정원의 풀과 나무 사이로 얼핏 세 사람의 모습이 보였다. 연신 소리를 지르던 남자는 산해빈관의 주인, 그러니까 요시다의 아버지였다. 그에게 대들던 목소리는 역시 요시다였다. 히토미 부인은 안절부절못하며 두 사람을 말리고 있었다. _p.125

Q1 야구에 진심인 사람은 창이 말고도 한 사람이 더 있었습니다. 요시다의 진짜 꿈은 뭘까요?

Q2 창이가 약을 가져다준 요시다 여동생의 이름을 맞춰 보세요.

Q3 요시다가 창이에게 마음을 열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Hint p.146

6. 그날의 일제 강점기

“으음, 억!”

칠성 선수들의 비명도 연달아 들려왔다. 창이가 간신히 눈을 떠서 주위를 살펴보니 순사들이 조선인 학생들만 골라 때리고 있었다.

“꿀꿀다. 흐흐흐!”

사토와 광일 녀석들은 이 광경을 즐기듯 팔짱을 끼고 서서 히죽거렸다.

“싸움을 먼저 건 녀석이 누구야?”

몽둥이세례를 실컷 퍼붓고 나서야 한 순사가 주위를 둘러보며 소리쳐 물었다.

“저 새끼가 먼저 쳤어요!”

사토가 기다렸다는 듯이 창이를 가리켰다. 창이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당장이라도 달려들 것처럼 몸을 앞으로 내밀었다.

“그건 네가 먼저 시비를!”

“이 자식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나?”

순사가 몽둥이를 치켜들어 창이의 등을 힘껏 내리쳤다. 창이는 짧은 비명을 터트리며 휘청거렸다.

“하여간 조센진들 더러운 성질머리하고는. 어서 사과해!”

순사가 창이를 향해 욕박질렀다. 창이는 화가 치밀었다. 어깨를 밀친 건 맞지만, 먼저 시비를 걸며 주먹을 휘두른 건 사토였다. _p.21

Q1

조선인이라는 이유로 수모를 당합니다. 창이가 겪을 일 중 하나를 적어 볼까요.

Q2

일제 강점기가 어떤 시대인지 조사해 보세요.

7. 설마! 히토미 부인?

창이는 얼떨결에 부인들이 힐끔대는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스무 걸음 남짓 떨어진 거리에 어떤 부인이 흰 꽃이 그려진 붉은 양산을 쓴 채 서 있었다. 분명 처음 보는 얼굴일 텐데 어딘가 낯익었다. 순간 창이의 온몸이 얼음처럼 굳었다.

‘말도 안 돼!’

창이는 눈을 비비고 몇 번이나 다시 부인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그러나 아무리 보아도 창이의 머릿속에는 한 사람의 얼굴밖에 떠오르지 않았다. 바로 어머니였다. _p.53

Q1 창이는 왜 히토미 부인을 보고 놀랐나요?

‘이, 이모……’

그때, 이모의 목에 걸린 노란 스카프가 눈에 띄었다. 창이가 청월루에서 받은 월급을 쪼개서 산 싸구려 스카프였다.

창이는 이모도 요시다와 함께 일본으로 돌아간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모와 마주 앉아 대화 한 번 제대로 나누지 못했는데 기약 없는 이별이 먼저 온 것이다. 이모에게 하고 싶은 말들은 가슴에 묻어 두더라도, 자기를 지켜 준 고마운 마음만큼은 꼭 전하고 싶었다. 그래서 이모에게 줄 선물을 마련했었다. _p.170

Q2 대망의 야구 대항전이 시작됐습니다. 창이는 경기 도중 관중석에 앉은 히토미 부인을 발견합니다. 하지만 히토미 부인은 이제 일본으로 돌아가게 됐지요. 여러분이 창이를 대신하여 히토미 부인에게 전하고 싶은 말을 적어 보세요.

8. 나랑 닮았네!

Q1 아래의 빈칸에 각 인물의 성격을 적어 보세요.

창이

요시다

난영

Q2 위에 적은 인물 중 나와 비슷한 캐릭터는 누구인가요? 그 이유도 생각해 보세요.

9. 굴러 굴러 야구공

공을 모아 둔 바구니 앞으로 달려갔다. 그런데 바구니를 뒤적거리다 보니 절로 한숨이 나왔다. 대부분의 공이 가죽이나 실밥이 터져서 너털너털했다. 이렇게 낡고 해진 공으로는 투구 연습이 제대로 될 리가 없었다. 작은 흠집으로도 공의 회전이나 속도 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창이는 심하게 터진 공들을 작은 바구니에 따로 담아 두었다. 공을 새로 살 여유가 없으니 꺾매서 쓸 요량이였다.

그나마 쓸 만한 공들을 골라서 자리로 돌아가 투구 연습을 다시 이어 갔다. 같은 동작을 반복하며 공을 던졌다. 새끼줄로 뭉친 공을 던지다가 가죽으로 만든 공으로 하려니 익숙하지 않았지만, 던지면 던질수록 공이 떨어지는 각도가 조금씩 커지고 있었다. _p.67

Q1

창이의 야구공은 우리가 아는 것과 조금 다른 듯합니다. 하지만 장비에 연연하지 않고, 야구에 열정적인 창이. 그런 창이를 위해 특별한 야구공을 그려 주세요.

10. 야구는 나의 꿈이라고요!

“학교도 다니고, 청월루 일도 할 수 있겠니? 웬만한 어른도 하기 힘든걸?”

할 수 있어서 하려는 게 아니었다. 해야 하는 일이기에 하려는 거였다. 창이는 학교도 계속 다니면서 야구도 끝까지 하고 싶었다. 그러기 위해 돈이 필요했다. _p.35

Q1

여러분도 창이처럼 꿈이 있나요?

Q2

그 꿈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나요. 혹은 해야 하나요.

11. 생각 공유하기

Q1

소설을 다 읽고, 기억 남는 장면을 적어 보세요.

Q2

야구 대항전이 펼쳐지고, 창이는 모든 힘을 쏟아 공을 던집니다. 고된 훈련과 청월루의 일까지. 앞으로 창이는 어떻게 지내게 될까요?

12. 내일의 칠성 에이스

창이는 모든 힘을 쏟듯 공을 던졌다. 똑같은 궤적과 속도였다. 공이 창이의 손에서 벗어나는 순간, 요시다가 다리를 들어 올리며 방망이를 세게 내리쳤다.

딱!

공이 큰 소리를 내며 하늘 높이 솟구쳤다. 관중들이 일제히 탄성을 터트렸다. 창이는 눈으로 날아가는 공을 쫓았다. 요시다가 친 공은 담장을 향해 멀리멀리 날았다. 호석이 형이 고개를 들고 공의 방향을 쫓으며 힘껏 내달렸다.

이상했다. 이 순간이 왜 이렇게 느리게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질까? 공이 날아가는 한 점 한 점이 창이의 눈에 선명하게 박혔다. 창이는 그 모든 순간을 놓치고 싶지 않았다. 한시라도 시선을 떼지 않고 공이 날아가는 모습을 눈에 담았다. _p.174

Q1

창이는 대항전에서 후회 없는 공을 던졌습니다. 요시다는 그런 공을 힘껏 쳤지요. 그걸 바라보는 히토미 부인과 난영……. 대항전을 위해 열심히 달려 온 인물들에게 전하는 편지를 적어 보세요. 소설 속 인물 누구라도 좋습니다.

TO.

미래인 청소년 결작선

- 87 칠성애이스 고수진 지음
- 86 나의 로스 앤젤레스 이근미 지음
- 85 열일곱의 미리보기 쿠로노 신이치 지음 | 이미향 옮김
- 84 소녀 저격수 한정영 지음 으뜸책 선정
- 83 한판 불을 결심 박하령 지음 으뜸책 선정, 한국학교사서협회 추천도서
- 82 조선 판타스틱 잉글리시 신현수 지음 한국학교사서협회 추천도서
- 81 힌트, 하늘을 나는 교실 나토리 사와코 지음 | 이미향 옮김
- 80 풀나나 농장의 휴식 선자은 지음
- 79 유령 아이 손서는 지음 책씨앗 추천도서, 문학나눔 선정도서
- 78 덕물풍 이승민 지음 독서평설 프리미엄 회원 필독서, 문학나눔 선정도서
- 77 안전가옥 코드 코먼 지음 | 이철민 옮김
- 76 인플루엔자 D와 빅 블랙 큐브 제이크 버트 지음 | 채효정 옮김
- 75 초크체리 중학교의 위험한 낙서 고든 코먼 지음 | 김영란 옮김
- 74 어둠의 속도 알렉스 쉬어러 지음 | 윤여림 옮김 학교도서관저널 추천도서
- 73 열네 살 CEO 앤드루 노리스 지음 | 함현주 옮김 한우리가 뽑은 좋은 책
- 72 미녀와 쓰레기통 조앤 오코넬 지음 | 최지수 옮김 학교도서관저널 추천도서
- 71 지니어스 게임 3 레오폴도 가우트 지음 | 박우정 옮김
- 70 핸드폰 없는 2주일 플로리안 부센도르프 지음 | 박성원 옮김 북돋운 선정도서, 아침독서 추천도서
- 69 지니어스 게임 2 레오폴도 가우트 지음 | 박우정 옮김
- 68 구름사냥꾼의 노래 2 알렉스 쉬어러 지음 | 윤여림 옮김
- 67 속제 파업 그렉 핀커스 지음 | 채효정 옮김 학교도서관저널 추천도서, 어린이도서연구회 추천도서
- 66 프렌드북 유출사건 토마스 파이벨 지음 | 최지수 옮김 대한출판문화협회 올해의 청소년 교양도서, 어린이도서연구회 추천도서
- 65 구름사냥꾼의 노래 알렉스 쉬어러 지음 | 윤여림 옮김 학교도서관저널 추천도서
- 64 지니어스 게임 레오폴도 가우트 지음 | 박우정 옮김 학교도서관저널 추천도서, 아침독서 추천도서
- 63 어쩌다 대통령 사라 카노 지음 | 나윤정 옮김 학교도서관저널 추천도서
- 62 불량소년, 날다 고든 코먼 지음 | 최제니 옮김 학교도서관저널 추천도서, 아침독서 추천도서
- 61 빅스비 선생님의 마지막 날 존 D. 앤더슨 지음 | 윤여림 옮김 어린이도서연구회 추천도서
- 60 아이를 빌려드립니다 알렉스 쉬어러 지음 | 이혜선 옮김 학교도서관저널 추천도서
- 58 나쁜 학생은 없다 고든 코먼 지음 | 성세희 옮김 아침독서 추천도서, 한우리가 뽑은 좋은 책
- 57 로봇 하트 파드레이그 케니 지음 | 서애경 옮김 아침독서 추천도서
- 56 달기지어 안녕 스튜어트 깁스 지음 | 이도영 옮김 아침독서 추천도서
- 55 스페이스 보이 닉 레이크 지음 | 이재경 옮김
- 54 니나 대장 실종사건 스튜어트 깁스 지음 | 이도영 옮김
- 53 마틸다 효과 엘리 어빙 지음 | 김현정 옮김
- 52 브이로그 조작사건 팀 콜린스 지음 | 김영아 옮김 학교도서관저널 추천도서, 한우리가 뽑은 좋은 책
- 51 2041 달기지어 살인사건 스튜어트 깁스 지음 | 이도영 옮김 학교도서관저널 추천도서, 아침독서 추천도서
- 50 로봇 소년, 학교에 가다 톰 앵글버거, 폴 델린저 지음 | 김영란 옮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청소년 권장도서, 한우리가 뽑은 좋은 책
- 49 누구나 떨어진다 제임스 프렐러 지음 | 서애경 옮김
- 48 바다에서 보낸 편지 알렉스 쉬어러 지음 | 이재경 옮김
- 47 트루와 넬 G.네리 지음 | 차승은 옮김
- 45 유령부 알렉스 쉬어러 지음 | 이도영 옮김 학교도서관저널 추천도서
- 43 친구한테 차이기 전 33분 토드 하삭 로위 지음 | 김영아 옮김
- 42 나를 돌려줘 A.S. 킹 지음 | 박찬석 옮김
- 41 하늘에서 돈이 내린다면 프랭크 코트렐 보이스 지음 | 이재경 옮김
- 39 형제는 용감했다 알렉스 쉬어러 지음 | 정현정 옮김
- 38 인터넷 나라의 앨리스 안토예 스틸라트 지음 | 이덕임 옮김
- 35 쓰레기왕 엘리자베스 레이어드 지음 | 김민영 옮김
- 34 푸른 하늘 저편 알렉스 쉬어러 지음 | 이재경 옮김 책따세 추천도서
- 33 로봇 소년, 날다 고든 코먼 지음 | 정현정 옮김
- 30 그래도 학교 고든 코먼 지음 | 안지은 옮김 영 리더스 초이스 상 수상작
- 29 컨닝 X파일 크리스틴 부처 지음 | 김영아 옮김
- 28 피그보이 비키 그랜트 지음 | 이도영 옮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추천도서
- 22 두근두근 체인지 알렉스 쉬어러 지음 | 정현정 옮김 KBS 한국어능력시험 선정도서, 알라딘 추천 우리시대 청소년 도서
- 21 17세 이근미 지음 책따세 추천도서, 한국문화예술회관 우수문학도서
- 20 두근두근 백화점 알렉스 쉬어러 지음 | 김호정 옮김 간행물윤리위원회 청소년 권장도서
- 19 방관자 제임스 프렐러 지음 | 김상우 옮김 책따세 추천도서,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추천도서
- 18 불량엄마 굴욕사건 비키 그랜트 지음 | 이도영 옮김
- 16 통조림을 열지 마시오 알렉스 쉬어러 지음 | 정현정 옮김 학교도서관저널 추천도서
- 14 쌍꺼풀 만나 지음 | 김선희 옮김
- 12 초콜릿 레볼루션 알렉스 쉬어러 지음 | 이주혜 옮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추천도서, 아침독서 추천도서
- 09 불량엄마 납치사건 비키 그랜트 지음 | 이도영 옮김 캐나다 자작나무상 수상작
- 08 흠으로 슬라이딩 도리 힐레스타드 버틀러 지음 | 김선희 옮김 책따세 추천도서
- 04 트루먼 스쿨 악플 사건 도리 힐레스타드 버틀러 지음 | 이도영 옮김 책따세 추천도서, 독서새물결모임 추천도서, 아침독서 추천도서